

대회선언문

커다란 연잎이 여러 호수를 가득 메운 이곳 세미원은 마치 부처님의 연화장 세계처럼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연화장 세계는 수없이 많은 연잎마다 한량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고, 각각의 연잎마다 천백억 부처와 보살이 출현한다고 하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모두 부처이고 보살
입니다.**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 말라위
에서 이곳까지 오신 말라위
청소년 공연단 여러분,
여러분은 이 땅에 평화의
가르침을 전하러 온 불보살의
화신입니다. 또한 이 뜻 깊은
행사를 열어주신 서영훈 총재
님과 말라위 어린이를 위한
후원 사업을 펼치고 계신**

**사단법인 우리문화 가꾸기회
여러분, 그리고 살레시오
수도회의 모든 분들과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한 이 아름
다운 세계를 장엄하는 불보살
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프리카
말라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이**

따로 없는 불이(不二)의 자리입니다. 도움을 줄 기회를 줌으로써 우리에게 복의 밭(福田)을 일굴 수 있는 기쁨을 주었으니 도움을 주는 이와 도움을 받는 이가 따로 없는 모두가 주인공인 자리입니다.

그것은 이곳 두물머리가 남과 북의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 북쪽의 금강산에서 발원하고, 남쪽의 태백산에서 발원한 두 물줄기가 이곳에서 합쳐져 하나의 물줄기가 되는 것처럼 나와 남이 따로 없고, 남과 북이 따로 없고, 부처와 예수가 따로 없으며, 부자와 빈자가 따로 없는 평화와 화합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두가 주인입니다. 특히 이역만리에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이 자리까지
와주신 말라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희망을 나누러 오신
진정한 주인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평화와
화합의 주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희망을
나누는 자리를 시작합니다.**

**불기2555년 9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